

○○○ 해방후 각 공화국의 통치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시리즈 <完>

세계강화에 공헌한 정권분석

좌담 각 공화국의 성격과 본질

—사회:바쁜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은 본시리즈를 마치면서 해방후 각 공화국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한국공화국의 성격을 고찰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시리즈를 총괄하면서 기획시리즈에 대한 약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학:기존의 국가 성격을 파악하는 이론은 어떤 경제적 변동이 있으면 그것이 사회계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계급구조의 변동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설에 의해 정립된다는 거시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국가권력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태가 정책으로 산출된다는 가정하에서 정책에 관련된 국가권력의 문제, 국가와 의회 및 외국자본, 자본과 국가와 의 관계 등 여러정책과 관련된 변수들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국가권력의 성격을 도출하는 미시적인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선:그렇습니다. 소위 국가권력을 말할때 궁극적으로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함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틀로 택한 국가의 성격규명을 위해 각 공화국의 정책으로 나누어 총체적 성격을 도출해내고자 한 의도는 각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모순이라고 그 저변에

지배세력들만의 밀원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 성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이 또한 한국 국가의 특수한 성격이겠지요. 각 정책들이



(정 주 신)
한국국가성격을 볼때 친미반공국가, 폭력적 국가체제로 볼 수 있는데...

정치행위에 나타났던 일관된 부분에 본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공화국의 대표적 정책에서 나타난 한국 국가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신:저는 한국 국가의 성격을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가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5·16이후 수출주도형의 자본축적 방식을 들

을 파악해볼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해방전에는 반봉건, 반제국주의가 공존했으나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반봉건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에 대한 모순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공화국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언젠가 접했던 '만약 순수해방 공간이 들어 있었다면'이라는 글귀를 보고 현재의 친미·친일성격 내지는 예측과 함께 한국국가권력의 파행적인 구조조정을 다시한번 절감했습니다.

▲정주:그렇습니다. 해방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의 체제개편이 이루어졌고 군부쿠데타도 미국이 추후에 승인했다는 설도 있으니까요. 당시 브라운트우드체제하에서는 미국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곧 자본주의 체제하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속정체하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분배문제는 이미 존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으로 볼 때 한국만이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페만사태에서도 보듯이 제3세계 뿐 아니라 제1세계를 포함해 모두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종속문제는 두고

둘고 풀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사회:분단 이후 분명 한국은 세계체제하에 곧바로 편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또한 미국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반봉건'의 해소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건제라는 것은 토지소유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해방이후 시급히 등장한 토지개혁 문제의 해결은 불완전했습니다.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은 이전 되었지만 기타 생산수단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근현대적 토지소유형태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토지개혁의 불철저성으로 소작관계 또는 형

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부채지주나 소작료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유:토지문제는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해방을 전후해서 가장 중대사였던 토지소유관계가 한국전쟁 이후 애매해졌다는 점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후 사회적 생산요소의 기반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물론 그 점에 동의합니다. 한국전쟁후 급속한 공업의 성장은 저임금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저임금이 기인한 저생산물 가격정책과 함께 불철저한 토지개혁으로 파편된 농촌이 산업예비군의 배경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70년대 말까지 파급된 영향이며 80년대의 도시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을 조망하면서 논의 했으면 합니다.

▲이:해방직후 민중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토지개혁이 하층민중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국가권력의 체제유지를 위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농민들은 단지 '수혜자'였을 뿐입니다. 사회수단의 담지자로서 민중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정주:해방직후의 민중이 주체로 서지 못했던 것처럼 1공화국에서 4공화국까지 민중들의 대의양식도 미약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 국가 성격중의 하나인 친미·반공국가라는 이데올로기 틀안에 둘러싸이고 말았던 것이죠.

원 지배권을 획득하는데 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민주화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화의 개념문제에 달려있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늘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는 야권조차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배층이 이런 국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민중들이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해방이후 국가의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대응양식은 결국은 정권의 체제에 흡수돼버리는 식의 수동적 형태였습니다. 국제체제·환경과 정권의 체제유지적 성격 그 내부의 기층민중사이의 조직화의 부재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성격의 본질적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민중의 세력화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력은 각 산업간의 공통분모를 하루빨리 찾아낼 때 가능하죠. 7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공장일용직정책은 많은 여성근로자를 배출했죠. 당시에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후반 중공업육성으로 남성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노동운동은 어느정도 힘을 가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중계급의 본질적인 조직화 문제는 생산근로자와 서비스 계

급은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

된 측면에서 6공화국의 북방정책

조각 지배세력, 특히 집권층의 이해와는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겠

조 정주영씨의 방북사건은 자본의 이익에는 국가나 이해를 포기

가 필요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국제환경·국제체제로 인해 국가권력내의 요구와 자본을 가진 자들과의 요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부와 판료는 물론이고 자본과 국가권력

내의 마찰은 자본가 세력을 급성장시키고 있죠.

▲이:이렇게 자본가계급이 해

계모니를 넘기는 상황에서 노동

문제는 국가의 안보차원보다는

앞으로 자본가의 이익에 우선적

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운동

이제는 노동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동선)

—사회:그동안 확정되지 못한 민중의 힘을 조직화하는 것이 관

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직선제라는 제도적인 수단

으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려고 하고 있는 6공화국후 앞

으로의 국가권력의 성격은 어떠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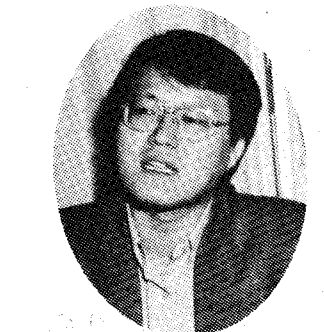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70년대 외자도입, 국

가주도하 경제계획 등에 의해 자

본가들은 국가권력에 종속되었으

며, 지배세력의 주류인 군부의 입



(유영학)

외세와 외국자본이 구별되고, 지배계급 내부에서도 군부, 관료, 자본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노동

자·농민도 세력화되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 특히 6·29선언후 사회

집단이 세력화되고 있는 추세

▲유:자본의 자율성문제에 대

지배계급 모순 극복할 민중세력 조직화시급 해방직후 미국에의한 자본주의 체제내 편입돼 자본의 운동과 발전으로 상대적 자율성 확대



(정우곤)

호르는 기본 모순은 일관되었다는 것이죠.

▲정우곤:동감입니다. 민족문제를

를 알고자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

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

안 각 공화국들은 초지일관되게

각 정권들은 정책 입안에서 초지일관되게 민중의 요구를 배제

수 있었죠. 두번째,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친미반공국가라는

점이고 세번째, 강력한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정권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사회: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한국 국가성격 중 지금

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제국

주의 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를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예, 한국 국가의 그러한

성격은 바로 분단국가 수립과정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그렇습니다. 해방후 북한

은 소작을 없앤 전통적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한국은

불철저한 토지개혁으로 '저임금'

이라는 산업구조를 낳았습니다. 또

한 해방후 토지개혁은 오늘날의

산업구조 제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의도적인

시도로서 산업구조 제정정은 전

세계 자본주의의 보편적 국가이

익과 정권의 특수한 이익을 동시

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

국국가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회:해방직후의 국가성격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민중의

대응양식은 어떠했는가를 한국의

통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이의 피

리감을 축소시켜 단결을 얼마나

공고히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민중들의 계급·계층적 분화가 가

져온 결함력 약화는 민중운동의

양적발전에 불구하고 지배세력

에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

었습니다. 정권은 민중부문을 이

질 화시키기만 하면 실질적 세력

화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

고 있죠.

함께 웃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야자동차



짚는 방아도 손이 드나들어야 한다.

책 한권을 끝까지 읽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군게 마음다진 계획은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는 게 그런거라며
속편히 읽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짚는 방아도 손이 드나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일도 그만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한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약속부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세요.

KIA 가야자동차

KIA MOTORS